

2020. 9. 1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9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
          :  어르신복지과

어르신복지과장	김연주	2133-7300
요양보호팀장	노향원	2133-7419
담 당 자	임경자	2133-7426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2매

## 서울시, 어르신 돌봄 장기요양종사자 6만 명에 무료독감예방접종...11.10일까지

-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6만 여 명 대상
-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 중요성 증대...건강한 노동권 확보 도모
-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지향...9.1(화)~11.10(화)까지 무료 실시
- 지난해 요양보호사 대상, 올해 장기요양기관 및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

서울시가 9월 1일(화)부터 11월 10일(화)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
- 접종 대상은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만 61세 이하(1959. 1.1.이후 출생자) 약 6만 여 명이다.
- 노인의료복지시설(재가노인복지시설/재가장기요양기관/노인주거복지시설)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직업)치료사, 치과 위생사, 조리원 등이 그 대상이다.

대상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접종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하는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.

-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(4가백신비+접종시행비)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.
-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노동권 확보가 최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다. 이에 서울시는 무료독감예방접종으로 어르신과 돌봄종사자들의 건강을 모두 지키고자 한다.
  - 지난해에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접종하였으나, 올해는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이 만 62세로 하향 조정되었다.
  - 변동된 기준에 맞춰 서울시는 만 61세 이하의 장기요양요원 및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무료접종대상자 범위를 넓혔다.
-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장기요양종사자 무료독감예방접종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. 특히,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돌봄서비스 개선에 한몫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.
  - 접종방법 및 시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(02-120) 또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(02-389-7790)로 문의하면 된다.
-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절기가 도래하고 있다. 그만큼 전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이 분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종사자의 건강 확보가 최우선”이라며 “양질의 노인 복지를 위해 돌봄복지 일선에서 힘쓰시는 장기요양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